

●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473호

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2일
금융위원회

1. 개정 사유

- 지난 10여 년간 금융산업 변화, 新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 대상 확대 등으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
- 이에 연구용역('19.2~12., 한국금융학회)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(공청회 등, '21.4)을 거쳐 「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」을 마련('21.5월)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*을 추진

* 「금융위 설치법」 시행령 개정('22.3) :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, 감독·발행분담금 환급규정 개편

2. 주요 내용

가. 감독분담금 금융영역간 배분 방식 개편

- 감독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투입인력 비중을 상향하되, 금감원 인력 중 금융영역별 구분이 어려운 인력비중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영업수익 비중을 유지

나. 감독분담금 금융영역내 배분 방식 개편

- 영역별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양화하고, 업종간 점유율 변화를 반영

다.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 강화 및 합리화

- 면제기준을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 강화, 신규업종을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추가

- 감독수요·사업규모가 적은 반면 업체수가 많아 행정비용이 과다한 업종에 대해 건별 감독분담금을 신설

라. 추가감독분담금 기준 합리화

- ①추가 감독분담금 징수 시 실제 검사투입연인원수를 포함하여 산정, ②법적 요건의 정의 및 검사 투입인원 산정기준·부과시점 명확화

마. 기타

- ❶ 비금융업 겸영업종에 대한 ‘금융부문의 영업수익’ 구체화
- ❷ 총부채에서 제외하는 부채 기준 명확화 : 정책적·공공적 부채 또는 부과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부채 명확화
- ❸ 감독분담금 산정시 해당기관의 결산일 기준 적용
- ❹ 감독분담금 추가 징수 절차 마련,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단위조합 징수·납부 대행 절차 구체화, 분담금 일시납 규정 마련

3. 세부 개정 내용

-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‘법령정보 (고시/공고/훈령)’를 참조
 -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(고시/공고/훈령)